

# 너를 사랑

MARSA KOREA  
MAGAZINE

2017 06  
제4호



더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만들기에  
앞장 서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해양구조협회

# 가장 좋은 CPR은 bestCPR



## 알리고 Rligo AED 트레이너® T200

- ▶ 패드 부착 위치 LED 표시 및 교환용 패드 사용
- ▶ 모든 커넥터 연결방식 적용
- ▶ 일시정지 및 음량조절 기능
- ▶ 다국어 지원
- ▶ 교육에 편리한 전용 리모컨
- ▶ AHA '2015년 가이드라인' 적용 제품



## 누르고 Nurugo CPR 마네킹®

- ▶ 인공호흡을 잘할 수 있도록 인체에 가까운 2중 관절 목구조
- ▶ 심폐소생술 품질에 대한 시각적, 청각적 되먹임 기능
- ▶ 가슴압박 깊이와 속도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기능
- ▶ 더 정확한 AED 패드 부착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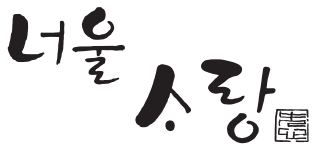
사단법인 한국해양구조협회

## MARSА KOREA MAGAZINE

2017 06  
제4호



발행처 한국해양구조협회  
발행인 신정택  
발행일 2017년 6월 20일  
주소 48562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356번길 93 (용당동)  
TEL. 051) 714-3695  
FAX. 051) 714-3095  
기획·편집 김다현  
디자인·인쇄 세종출판사  
TEL. 051) 463-5898



표지 제자 「너를 사랑」

바람에 일어나는 물결을 의미하는 '너울'과  
봉사정신의 밑바탕인 '사랑'의 합성어로 해  
양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한국해양구조협회  
의 숭고한 봉사정신이 담겨져 있다.

## CONTENTS

### Special Theme

- 05 총재동정 'BNK 두루누리 행복사업 공모' 협약식 참석
- 06 칼럼 초대형 해양구난업체 육성방안  
- (재)한국해양재단 해양미래연구소 연구위원 조동오 박사

### MARSА News

- 08 본부 뉴스
  - 1) 박람회 이모저모
    - 제3회 대한민국 해양안전엑스포
    - 제7회 튼튼쑥쑥 어린이 박람회
    - 제14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
  - 2) 한국해양수산연수원과 MOU체결
  - 3) 민·관·군 수중 수색 구조 합동 작전 FTX 훈련
  - 4) 제3회 바다사랑 한마음 걷기대회
  - 5) 동일중앙초등학교, 해양안전교육
  - 6) 화도진 중학교, 여객선 해양안전체험교육
- 11 지부·지역대 뉴스
  - 1) 전북남부지부 창립식
  - 2) 완도구조대 인명구조선 '장보고호' 진수식 개최
  - 3) 전북북부지부, 수상사고대비 대국민체험행사
  - 4) 경북지부 울진구조대 출범
  - 5) 여수구조대 불가사리 퇴치행사
  - 6) 전국 구조대장 이·취임식
    - 송파구조대, 강북구조대, 남양구조대

### MARSА Story

- 24 안전을 부탁해 최초의 여성구조대장, 남양구조대 박정희 대장
- 26 환경을 부탁해 17년간 북한강 물줄기와 함께 흘러온 남양구조대
- 29 교육안내 2017년 상반기 인명구조요원 교육

### MARSА Info

- 33 국내뉴스
  - 1) 국민안전처,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 추진
  - 2) 여름철 무더위에 맞설 시원한 해수욕장이 돌아왔다!
  - 3) 연안 안전사고 주의, 6~8월 가장 많이 발생(39%)
  - 4) 여름철 물놀이 안전수칙 국민안전처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 MARSА Notice

- 38 협회교육안내
- 40 수상구조사 신설
- 44 협회후원안내

## 협회 임원 명부

### 총재단(16명)

2017.3.1~2019.2.28

연번	직책	성명	소속/직책
1	총재	신 정 택	세운철강 회장
2	이사장	민 흥 기	본회 상임임원
3	수석부총재	김 성 태	동일조선(해운) 회장
4	부총재	이 정 기	한국선급 회장
5	부총재	김 임 권	수협중앙회 회장
6	부총재	이 용 섭	한국해운조합 회장
7	부총재	김 영 무	한국선주협회 상근부회장
8	부총재	장 만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
9	부총재	문 병 일	Korea P&I 전무이사(상임)
10	부총재	우 예 중	부산항만공사 사장
11	부총재	나 중 팔	한국도선사협회 회장
12	부총재	조 동 길	세화수산 대표
13	부총재	윤 종 휘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14	부총재	이 정 포	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15	부총재	장 성 호	동신해운 회장
16	부총재	목 익 수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 이사진(14명)

연번	직책	성명	소속/직책
1	이사	황 의 선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
2	이사	황 종 우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
3	이사	정 봉 훈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수색구조과장
4	이사	임 준 택	대형선망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5	이사	고 성 원	대양해운 대표이사
6	이사	김 성 길	HBC해운 회장
7	이사	박 명 호	한국해양안전협회 회장
8	이사	박 상 무	씨스포빌 대표이사
9	이사	박 창 서	선진종합 대표이사
10	이사	한 창 범	삼원중공업 대표이사
11	이사	김 기 창	베스트씨피알 대표이사
12	이사	박 석 영	대저해운 사장
13	이사	방 현 우	지평선마린리조트 대표이사
14	이사	이 권 희	한국해기사협회 회장

### 감 사(2명)

연번	직책	성명	소속/직책
1	감사	김 성 천	지안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2	감사	김 명 재	목포해양대학교 교수

| 총재동정 |

# 신정택 총재, ‘BNK 두루누리 행복사업 공모’ 협약식 참석



신정택 총재(오른쪽에서 네 번째)가 15일 ‘BNK 두루누리 행복사업 공모’ 업무 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지난 5월 15일, 신정택 총재(세운철강 회장)는 ‘BNK두루누리 행복사업 공모’ 업무 협약식에 참석하였다.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을 맡고 있는 신정택 총재는 지난 5월 15일 BNK금융그룹 부산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부산지역 사회복지 단체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구체성과 실행 가능성이 높고 사회적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사회복지 사업 공모를 추진하였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제안기관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게 되며 부산은행은 각 사업 당 최대 5,000만원 까지 총 2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필요한 경우 부산은행 임직원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신정택 총재는 올해 초 부산 북구청, 북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산 북구 내 13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지역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공동체 형성을 위한 ‘북구 이웃애(愛)희망나눔’ 사업 협약식 등을 체결하는 등 어려운 이웃들이 처해있는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기부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칼럼 |

# 초대형 해양구난업체 육성방안



조 동 오 박사  
(재)한국해양재단 해양미래연구소 연구위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연안에 침몰한 세월호를 중국의 구난업체가 인양하는 과정을 2년 가까이 지켜 보면서 왜 우리나라에는 저런 구난업체가 없을까 하고 아쉬워하였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조선업은 세계 1위이고 해운업은 세계 10위권인 조선해운국가로서 이들 조선업 및 해운업과 직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초대형 해양구난업은 당연히 육성되었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연안해역은 수출입화물 및 연안화물을 수송하는 상선뿐만 아니라 국제여객 및 연안여객을 수송하는 여객선의 교통량이 밀집되어 있다. 또한 중국, 일본, 러시아를 입출항하는 많은 선박들이 우리나라 근해를 통과하고 있으며, 많은 어선 및 해양레저선들이 운항하고 있다. 공간적으로 한정된 연안해역에 선박교통량은 증가하는 반면에 강한 조류, 짙은 안개, 잦은 태풍 및 돌풍 등 자연적인 악 조건으로 해난 사고 위험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제2차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2017~2021)에 의하면 해양 사고는 2012~'13년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13: 1,093건 → '14: 1,330건 → '15: 2,101건 → '16: 2,307건).

이와 같이 매년 1,000~2,000건의 해양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들 사고에 의한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할 해양구난업 특히 초대형 구난업체는 육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우리나라 조선업과 해운업에 걸맞는 초대형 구난업의 육성을 위한 방향을 제시해 본다.

첫째, 해양구난의 범위의 확장이다. 해양구난에 관한 법률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수상구조법)」이 있는바, 법률 명칭에서 보듯이 해양구난의 범위가 수중이 아닌 수상에서의 수색·구조에 관한 한정하고 있다. 세월호 사고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대형 해양사고는 선박의 침몰로 이어지고, 따라서 해양구난은 수중작업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수상구조법」을 개정하여 해양구난의 범위를 수상뿐만 아니라 수중에서의 구난도 포함해야 한다.

둘째, 해양구난업에 대한 근거 규정의 마련이다. 「수상구조법」에는 해양구난을 업으로 하는 해양구난업에 대한 규정이 없다. 단지, 「수상구조법」 제26, 27, 28조에서 한국해양구조협회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인데, 한국해양구조협회의 회원은 민간해양구조대원 또는 해양관련 공공기관의 직원과 같이 개인회원을 자격 기준으로 하고 있다. 즉, 「수상구조법」에 해양구난업에 대한 규정이 없는 관계로 해양구난업에 회원자격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해양구난업은 해양에서 발생하는 해양사고에 대응하고 인명을 수색·구조하고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매우 특수한 업무이다. 따라서 이러한 해양구난업의 등록, 운영실태에 관한 통계, 육성을 위한 국가적 지원, 구난업의 책임 등을 규정하여야 한다. 특히 초대형

해양구난업을 육성하기 위해 순수 민간기업으로 육성할 것인지 또는 반관반민 형태의 회사로 육성할 것인지를 법에 담아야 할 것이다. 금번 세월호를 인양한 상하이셀비지의 경우 중국 교통부 소속으로 사실상 국가소유 기업이다. 우리나라의 초대형 해양구난업체에 관한 법인 성격을 규정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육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해양구조를 위한 기술개발체제의 확립이다. 해양구조는 육상 환경과는 판이하게 다르고 또한 악조건하에서 이루어진다. 즉, 세월호 인양작업에서 보듯이 수중에서의 작업은 산소부족, 강한 조류, 기압의 심한 변화, 시계 미확보 등 악 조건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수상에서도 강풍 또는 태풍, 짙은 안개, 강한 조류 및 해류 등 육상의 환경과는 판이한 환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양구조를 위한 기술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해양구조를 위한 자체 기술개발과 더불어 선진국의 기술개발 동향을 파악하고 이들 선진기술 도입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넷째, 해양구조를 위한 최신 장비를 개발하고 확보하여야 한다. 해양구조를 위한 기술개발은 필연적으로 장비개발로 이어진다. 이들 특수한 장비들은 대부분 고가이다. 따라서 초대형 해양구난업을 공공기관으로 육성할 경우, 동 장비를 국고로 확보하겠지만 민간기업으로 육성할 경우, 국가가 구입하여 민간에 임대할 수도 있겠다.

다섯째, 해양구조 전문가의 양성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해양구조는 다양한 악 조건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전문가가 필요하다. 「수상구조법」 제30조의10에서는 심해에서의 잠수 및 수난구조를 전문으로 하는 심해잠수사의 양성 및 관리를 위한 심해잠수구조훈련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심해 잠수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양구조전문가를 양성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여섯째, 해양구난요율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해양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하면 일차로 정부(해양경찰)가 수색·구조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침몰된 선박의 인양 등 어려운 상황에서의 작업은 민간 해양구난업자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해양구난요율을 사전에 법적 근거에 의해 마련해 둬으로써 구난에 관한 계약 및 협의 등에 시간을 소비하지 않고 사고 즉시 해양구난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는 Lloyds Open Form(LOF2011 contract)에 의한 구난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아주 특수한 장비 및 작업은 제외하고 일반적인 장비 및 작업에 대한 구난요율을 사전에 정하여 사고 즉시 구난업자를 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곱째, 해양구조에 관한 국제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대형 해난사고의 경우, 자국의 해양구조 능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주변국과 사전에 해양구조에 관한 국제협력체제를 구축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초대형 해양구난업의 육성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가 없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해양구난업에 대한 제도개선, 기술개발,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 구축, 장비개발 및 확보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많은 경우, 해난사고는 해양오염사고를 일으키고 해양구조는 방제작업과도 병행하게 된다. 따라서 해양구난업과 방제업을 연관 발전시키는 전략이 요구된다.



#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한 박람회 이모저모

## | 제3회 대한민국 해양안전엑스포 참가

우리협회는 지난 6월 14일부터 3일간 부산 벡스코(BEXCO)에서 개최되는 제3회 대한민국 해양안전엑스포(Korea Maritime Safety Expo 2017)에 참가하였다.



### ▲ 세미나

대한민국 해양안전엑스포는 해양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해양안전 관련 38개 기관, 단체, 기업이 후원하며 국내외 150여개사 450개 부스가 운영되었다.

이번 행사에서 우리협회는 해상사고 대처요령 및 구명조끼의 올바른 착용법 등을 홍보하는 부스를 운영하였으며, 더불어 행사 이튿날인 15일(목)에는 (주)코리아오션텍과 공동으로 '해양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기술 개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에는 본회 민흥기 이사장, 코리아오션텍 정광현 대표, 권기생 소장을 비롯하여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이승현 박사,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민성환 선임연구원, 한국해기사협회 이권희 회장,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 김태균 경비안전과장, 부산해양경비안전서 박상욱 경비구조과장 등 약 100여명의 해양안전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참여하였다.

발표주제는 「한국연안의 침몰선박 관리 현황」, 「해양안전분야 기술 및 제품의 국제표준화(ISO)」, 「(SOLAS





협약에 따른 도선사/ 현측사다리 고정장치 연구개발, 「신제품 방수장치 연구개발」, 「잔존유 제거 및 선체인양 기술개발」 등 심도 깊은 연구개발 과정 및 성과를 발

표하였으며 해양안전 기술표준화에 따른 해수부의 역할, 국내선박의 잔존유 회수방법 및 잔존유 회수 사례, 도선사 현측사다리 고정장치 설치에 대한 안전성 등에 대한 다양한 질의응답이 오갔다.



▲ 구명조끼 올바른 착용법 체험을 위해 협회 부스에 몰려든 학생들

본회 민홍기 이사장은 “오늘 발표되는 주제 가운데 해양사고 현장이나 해상활동 중에 즉시 활용 가능한 기술과 장비가 포함돼 있어, 국제해사기구(IMO)에서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국제표준기구(ISO)를 통해 제품과 기술을 표준화한다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해양국가에서 상용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그러한 의미에서 이 세미나는 매우 현실적이고 특별하며, 이 세미나를 통해 해양안전사고 예방과 대응기술의 개발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 | 제7회 튼튼쑥쑥 어린이 박람회 참가

우리협회는 지난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일산 KINTEX에서 개최된 '제7회 튼튼쑥쑥어린이 박람회'에 참가하였다.

이번 행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어린이 안전·건강 체험 박람회로 미래 대한민국의 주역인 어린이가 행복한 사회문화에 정착할 수 있도록 어린이들의 안전한 생활과 정신적, 육체적인 건강을 위한 40여개의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었으며 총 350개의 관련기관 및 기업이 참여하였다.



▲ 협회 권순길 강사가 어린이들에게 구명뗏목 탑승 이용법 등을 교육하고 있다.

재난현장체험 뿐만 아니라 미니어처 호스 체험과 한방, 구강검진, 식생활체험, 금융강좌 등 어린이들의 건강 및 실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우리협회는 올바른 구명조끼 착용법과 비상탈출 시 구명뗏목 탑승 및 이용법 등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해양재난의 순간에 어린이들이 스스로를 안전하게 지

킬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날 행사지원에 나선 서울지부 김상철 협회장은

## MARSA NEWS | 본부 뉴스 |

“이번 체험박람회는 어린이들에게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함께 참여하는 부모님, 선생님들에게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함께 알릴 수 있어 매우

뜻 깊은 행사였다”며 “앞으로도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며 대국민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하였다.

## | 제14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 참가

우리협회는 2017년 4월 26일부터 29일까지, 대구 EXCO에서 개최된 '제14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에 참가하였다.

국내 최대 규모의 소방산업 전문 박람회인 이번 행사는 국민안전처와 대구광역시 주최하며 소방산업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고 대국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개최되었다.

행사기간 동안 우리협회는 국민들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올바른 구명조끼 착용 교육 뿐만 아니라 실제 움직이는 모형 선박을 설치하여 어린이들에게 선박사

고 시 대처방법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양안전 체험존을 운영하였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협회는 체험을 통한 교육 효과 및 반응 등을 파악하여 국민안전처 및 유관단체에서 주최하는 안전박람회 등을 통해 체험교육 영역을 한층 넓히기며 대국민 홍보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 협회 김윤섭 본부장이 올바른 구명조끼 착용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MOU체결 해양안전 제고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 체결



▲ (왼쪽부터) 권영태 팀장, 배석한 해양플랜트안전센터장, 서병규 원장, 민흥기 이사장, 강웅 본부장, 김한준 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협회는 지난 6월 8일 부산 영도구에 위치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대회의실에서 '해양안전제고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하였다.



▲ 서병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과 민흥기 이사장

이번 업무협약에는 본회 민흥기 이사장, 강웅 본부장을 비롯하여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는 서병규 원장, 배석한 해양플랜트안전센터장, 권영태 팀장, 김한준 팀장 등이 참석하였다.

양 기관은 앞으로 해상안전분야 교육 및 정보교류, 해양안전분야 학술교류, 이론교육 및 시설활용에 대한 상호협력, 수난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연구과제의 공동참여와 협업, 기타 업무 연계 및 협력이 필요할 시 언제든지 상호지원이 가능하다.

# 해양특수구조 협업강화를 위한 민·관·군 수중수색구조 합동훈련



▲ 해운대 구조대원들이 합동훈련을 위해 장비를 착용하고 있다.

지난 5월 19일, 부산 영도에 위치한 부산해양경비안전서 전용부두에서 해경 중앙해양특수구조단과 해군 해난구조대(SSU), 우리협회 해운대구조대 등 총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특수구조 협업강화를 위한 민·관·군 수중수색구조 합동훈련’이 실시되었다.

2015년 5월, 민·관·군의 수중수색구조 협력과 관련하여 다자간 MOU 체결 이후, 같은 해 MIR-Dive 제1차 수중수색구조 합동작전을 시작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훈련을 진행해 오고 있다.

해경 중특단에서는 구조정 1척, 방제바지 1척, S-92 항공기 1기가 투입되었고 해군에서는 고속단정 2척, 우리협회에서는 민간자율어선 1척과 구조대원들의 개인 스쿠버 장비 등이 동원되었다.



훈련내용은 모의사고 현장을 가정하여 헬기, 구조정, 어선 등을 동원해 각 구조세력의 기동 훈련을 시작으로 전복선박 내에 갇혀있는 인명의 구조와 침선 수중탐색, 수중수색구조 훈련 등 민·관·군이 협력하여 각자의 위치에서 초동조치 수행능력을 배양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한단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오전 9시에 시작한 훈련은 오후 6시가 다되어 마무리 되었으며 마지막으로 각 단체가 함께 모여 훈련강평을 이어갔다. 우리협회 민홍기 이사장은 “모형 침몰선을 준비하여 우리 대원들이 바다 속에서 구조작업을 펼치는 훈련은 실제 사고현장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초동대응을 할 수 있도록 구조 역량향상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말하였다.

이어서 이창주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은 “오후에 바람이 많이 불어 훈련이 예상보다 어려움이 많았다. 실



▲ 항공훈련

제 구조현장은 지금 보다 더욱 예측할 수 없는 일이 펼쳐질 수 있어 항상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다”며 “어려운 구조활동 시 각 기관들의 장비들이 효과를 발휘하여 팀워크를 이끌기를 바라며 다음 훈련에는 오늘의 결과들을 토대로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하였다.



▲ 단체사진

## 제3회 바다사랑 한마음 걷기대회 참가



◀ 협회 민홍기 이사장, 김영무 한해총 사무총장, 김무성 의원 등 부산 지역 주요 인사들이 출발 퍼포먼스 컷팅식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한해총)가 주최하는 '바다사랑 한마음 걷기대회'가 지난 5월28일 개최되었다.

우리협회는 부산의 해양문화축제 자리에 동참하기 위해 민홍기 이사장을 비롯하여 본회 임직원 및 해운대 구조대가 행사에 참여하였다.

제22회 바다의 날을 맞아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김영무 한해총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부산영도구), 정태길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두영 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의장, 조승환 부산지방해수청장 등 부산지역 주요 인사들의 축하 속에서 3,000여명의 부산시민들과 해양가족이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바다사랑 한마음 걷기대회는 출발지인 태종대 공원을 일주한 뒤 국립해양박물관 특설

무대까지 총 6.5km 바닷길 코스로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에서 우리협회는 걷기대회 완주를 달성한 시민들의 경품추천에 자전거 5대를 후원하였으며 협회 민홍기 이사장이 직접 경품 증정식에 참여하였다. 또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해운대 구조대원들이 안전요원으로 활동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이번 대회를 주최한 한해총은 “이번 걷기대회는 국내 제1의 항구인 부산에서 시민, 관광객, 해양가족이 직접 바다를 보고 걸으며 해양산업에 보다 친숙히 다가서고 바다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느끼는 동시에 새로운 해양문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 동일중앙초등학교, 해양안전체험교육 실시



▲ 협회 김윤섭 본부장이 아이들에게 해양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협회는 지난 5월8일, 부산 동일중앙초등학교 3학년 124명을 대상으로 해양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에는 재난안전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한 6명의 협회 강사들이 참여하여 교육을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구명기구 사용법 및 요령, 정확한 심폐소생술 방법 및 자세 교정, 그리고 올바른 구명조끼 착용법 등 아이들이 직접 실습을 통해 숙지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교육을 진행했던 김윤섭 본부장은 “아이들에게 안전

에 대한 경각심과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며 “곧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고 해수욕장 개장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 사전 교육을 통해 물놀이 사고 제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학교, 기관 등을 방문하여 교육을 진행 할 예정이다”라고 하였다.

## 화도진 중학교, 여객선 해양안전 체험교육 실시

지난 5월 2일, 해상여객운송업체인 고려고속훼리(주)와 우리협회는 인천광역시 화도진 중학교 1학년 133명과 9명의 인솔교사들을 대상으로 여객선 해양안전 체험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좀 더 생동감 있는 해양안전교육체험을 위해 인천 연안 부두에서 출발하여 자월도를 거쳐 승봉도로 가는 여객선 안에서 진행되었다. 우리협회는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구명기구 사용법과 요령 등의 이론 교육과 재난 시 구명조끼의 올바른 착용법, 파라코드 팔찌 만들기와 같은 체험활동까지 학생들의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다.

인솔자인 화도진 중학교 조경이 교사는 “이번 교육은 우리 학생들에게 재난에 대한 경각심과 대처법 등을 익히는데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실제 운항하는 선박 내에서 진행되는 해양안전교육이라 그 효과는 평소의 안전교육보다 훨씬 뛰어난 것 같다.”고 전하였다.



▲ 협회 강릉 본부장이 해양안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 전북남부지부 창립식

지난 6월 9일, 부안군 출포만생태공원 대강당에서 우리협회 전북남부지부 창립식이 개최되었다.



▲ (앞줄 오른쪽에서 다섯 번째부터) 민홍기 이사장, 한동교 협회장, 김종규 부안군수, 조성철 부안해경서장과 전북남부지부 임원 및 대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본회 민홍기 이사장, 조성철 부안해양경비안전서장, 김종규 부안군수를 비롯해 전북남부지부 임원 및 대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전북지부에서 모두 관할해오던 바다 5,722.2km<sup>2</sup>의 광활한 해역을 신속한 구조체제를 위해 해경서단위별 해양구조협회 지부 설립 원칙에 따라, 전북지역을 전북북부지부와 전북남부지부로 각각 분리하여 좀 더 체계화된 민·관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전북남부지부 한동교 협회장은 창립사에서 “전북남부지부는 해양에서 구조활동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과 현장실습을 통해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와 해양에서의 구조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정화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부안해양경비안전서 조성철 서장은 축사를 통해 “전년도 해양경찰 통계를 보면 민간에 의한 사고선박 구조척수는 전체 구조척수의 약 21%를 차지하는 것은 해양사고에 있어 민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며 “더욱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부안해경서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하였다.

이어, 김종규 부안군수는 “우리 부안군은 서해안 3대 해수욕장 중 하나인 변산해수욕장을 비롯해 고사포·격포·모항·상록·위도해수욕장 등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다”며 “전북남부지부 대원 여러분이 평소 교육과 훈련으로 흘리는 땀 한 방울이 위급상황에 처한 부안군민을 살릴 수 있는 동아줄이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하였다.

한편, 한동교 협회장은 정읍구조대와 부안구조대의 초대 구조대장으로 활동하는 등 20년 가까이 민간구조대를 이끌며 구조, 구난뿐만 아니라 해양정화활동 등 해양안전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 완도구조대 인명구조선 '장보고호' 진수식 개최



◀ 완도구조대, 장보고호

완도구조대는 지난 6월 8일 전남 완도요트계류장에서 새로 건조된 인명구조선 '장보고호' 진수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장흥, 고흥, 여수, 나주 등 각 지역구조대장과 약 100명의 대원들의 축하 속에 진행되었다.

완도군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제작된 이번 '장보고호'는 약 7억 5천만원이 투입되어 작년 12월에 착공을 시작으로 올해 6월에 완공되었으며,噸수 10톤, 길이 13.3m, 폭 4.1m, 최대속력 21.5노트, 15인승으로 수중탐사를 위한 소나(Sonar), 선박화재진화 장비, 자동제세동기, 이동용 들것, 표면공급방식 잠수 시스템, 제트스키, 크레인 등 구조에 필요한 최첨단 장비가 완비된 구조용 선박이다.

김정환 완도구조대장은 “이번에 건조한 장보고호는 기루배이기 때문에 양식장 및 그물 등 장애물이 많은 완도 해역에 적합한 선박이다”며 “대원들과 함께 신속한 인명구조와 해상안전을 지키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였다.



▲ 진수식 행사현장



# 전북북부지부, 제2회 수상사고대비 대국민 체험행사 개최

올해로 제22회를 맞은 '바다의 날' 행사 일환으로 우리협회 전북북부지부(협회장 김상겸)와 군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채광철)가 공동으로 주관한 '제2회 수상사고대비 대국민 체험행사'가 6월 3일 은파호수공원에서 3천여명의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해양안전문화 대국민 홍보를 위해 진행되었으며 수상오토바이와 공기부양정, 헬기 등이 차례대로 구조 시연을 펼치며 관람객들의 박수갈채를 받기도 하였다.

또한 선박탈출 슬라이드 보트체험, 수상안전 그림그리기, 심폐소생술 교실, 포토존, 비상식량 체험부스 등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어 이색적인 볼거리와 체험의 기회가 함께 마련되어 눈길을 끌었다.



▲ 의장대공연

개막식에 참여한 본회 민흥기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난해에는 ‘제27회 해양소년단 리갯타 대회’가 열리고 올해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22회 바다의 날’ 행사가 열린 군산에서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개최되는 오늘의 행사는 그 의미가 매우 특별하다”며 “이 행사가 이곳 군산을 넘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안전체험행사로 발전하길 희망한다”고 전하였다.

전북북부지부 김상겸 협회장은 “수상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여 해양사고를 줄이고자 이번 행사를 계획하게 됐다”면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만큼 다양한 체험을 통해 안전을 알아가는 뜻 깊은 행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군산해경 채광철 서장은 “많은 시민 여러분이 행사장을 방문해 해양안전에 대한 특별한 시간을 경험하고 이색적인 볼거리와 추억에 남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 경북지부 울진구조대 출범



◀ 본회 민홍기 이사장과 경북지부 김태곤 협회장이 한명효 울진구조대장에게 견장을 달아주고 있다.

지난 5월 30일 경북 울진군 후포면에 위치한 울진문화예술회관에서 경북지부 울진구조대 발대식이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본회 민홍기 이사장, 경북지부 김태곤 협회장, 임광원 울진군수, 김창오 울진군의회의장, 오윤용 포항해경서장 등 관계기관장과 협회회원 등 총 250여명이 참석하였다.

경북지부는 경북연안 442km를 포항구조대와 경주구조대가 전담하여 관리해왔으나 앞으로 구산, 기성망양, 망양정, 봉평, 후정, 나곡 해수욕장 등 울진지역 해안은 울진구조대의 집중관리가 가능하게 되어 경북지역의 활동 영역 또한 넓혀질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해양사고에 대한 대응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회 민홍기 이사장은 격려사를 통해 “해상에서의 안전관리와 구조활동은 21세기 해양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보다도 절실하고 가치있는 과제다”며 “울진구조대의 출범이야말로 매우 시의적절하고 그 의미 또한 대단히 크고 특별하며, 이를 통해 울진해역에서의 안전관리와 구조활동은 더욱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하였다.

오윤용 포항해양경비안전서장은 축사를 통해 “울진구조대 발대로 경북 북부지역 해양사고에 더욱 신속한 민관협력 체제가 구축됐다”면서 “구조협회 역량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합동훈련 등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말하였다.

민홍기 이사장과 김태곤 경북지부 협회장으로부터 견장을 수여받은 한명효 울진구조대장은 “이번 울진구조대 출범을 시작으로 해양사고 예방과 구조·구난 활동에 앞장서서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는데 열과 성을 다해 봉사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 여수구조대, 제2회 여수 불가사리 대축제 개최

지난 4월 8일, 전남동부지방 여수구조대가 주최한 제2회 여수 불가사리 대축제가 개최되었다.

불가사리 대축제는 바다를 황폐화 시키는 불가사리를 дай버들이 제거하는 작업에 그치지 않고, 여러 가지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아이들도 동참 가능하며 교육의 효과도 함께 볼 수 있어 모범적인 행사로 거듭나고 있다.

축제기간에는 3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였으며 특히 여수중앙여중 3학년 학생 45명이 자원봉사로 직접 나서 다이버들이 잡아 올린 불가사리로 대형 작품을 만들기도 하였다.



▲ 다이버들이 불가사리 퇴치를 위해 바다속으로 뛰어들고 있다.

행사에 참여한 여수구조대 박춘탁 대원은 “해마다 이맘때 즈음 물속에는 불가사리가 바다 속에 짝 깔렸는데 그동안 계속 잡아내 개체수가 많이 줄었다”면서 “10년만 잡으면 불가사리가 거의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며 지속적인 수중정화 활동을 이어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어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한 박근호 여수구조대장은 “가족단위로 오셔서 축제를 즐기는 모습을 보면 뿌듯하다”면서도 “불가사리를 없애려면 지자체 예산투입이 절실하지만 관광에만 치우친 예산 때문에 지원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많다. 또한 해수부에서 행사장소를 허가받는 것조차도 매우 힘들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 여수중앙여중 학생들이 불가사리로 작품을 만들고 있다



▲ 기념촬영

# 전국 구조대장 이·취임식

## | 서울지부 강북, 송파구조대장 취임식

지난 5월 14일, 강원도 강릉시 산천진리 보보스다이브 리조트에서 서울지부 강북구조대장과 송파구조대장의 취임식이 함께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지부 김상철 협회장을 비롯하여 김경수 용산구조대장, 김철재 마포구조대장, 강인철 성동구조대장 등 협회임원 및 구조대원들을 포함하여 총 5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행사는 특별히 바다의 안전을 기리는 마음으로 진행된 개해제와 바다 속 수중정화활동도 함께 진행함으로써 취임식의 의미를 더하였다.

강북구조대와 송파구조대는 2009년부터 활동을 시작으로 지역대원들을 중심으로 수중정화활동, 구조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왔으며 약 8년 동안 지역의 안전과 환경 지킴이 역할을 해왔다.

서울지부는 이번 취임식을 계기로 해양안전분야 전문인력을 영입하고 활동범위를 넓히는 등 각 지역의 구조대 체계를 재정립할 예정이다.

이번에 취임한 송파구조대 김태석 대장과 강북구조대 황동하 대장은 앞으로 지역 해양안전을 위한 폭넓은 활동들을 책임감 있게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대원들의 격려속에 구조대 깃발을 힘차게 흔들며 각오를 다졌다.



▲ 구조대 깃발을 흔들는 김태석 송파구조대장



▲ 김상철 서울지부협회장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는 황동하 강북구조대장



## | 인천지부 남양주구조대장 이·취임식

인천지부 남양주구조대장 이·취임식이 지난 4월 15일 남양주시 화도읍 남양주 구조대 사무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 및 인천지부 임원들을 포함하여 남양주구조대원들 총 30명이 참석하여 이·취임식을 축하하였다.

이임하는 최성춘 구조대장은 2년 동안 남양주시 물놀이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안전요원으로 활동하였으며, 생태환경을 위해 북한강 일대에서 수중·수변정화활동을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헌신해 왔다.



▲ 기념촬영

이번에 취임하는 박정희 대장은 10년 이상 구조대원으로 봉사활동을 해오면서 남다른 리더십과 대원들의 행사 참여 독려에 앞장서며 그 능력을 인정받아 왔다. 또한 협회 창립 이후 최초의 여성구조대장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박정희 대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금까지 남양주구조대를 위해 많은 분들의 노력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며 “대원 단합과 화합을 가장 우선적인 리더의 덕목으로 삼고 남양주구조대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말하였다.

취임식 후 최성춘 전임 구조대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다.



# 안전을 부탁 海

| 인터뷰\_ 남양구조대 박정희 대장

## 최초의 여성구조대장 ‘남양구조대 박정희 대장’

일과 가족, 봉사활동 사이에서 오늘도 치열하게 하루를 보내고 있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주부, 워킹맘, 만며느리’ 그녀를 수식하고 있는 단어들은 대한민국의 보통 엄마들에게 흔히 주어지는 단어이지만 이 모든 역할을 빈틈 없이 잘해내는 건 만만치 않다. 하지만 여기서 끝날 줄 알았던 그녀의 활동반경에 또 다른 책임이 더해졌다.

올해 4월, ‘남양구조대장’이라는 타이틀까지 주어지면서 그녀의 일상은 좀 더 분주해졌다. 이 모든 일들을 ‘성공적으로’ 병행하는 그녀를 우리는 ‘슈퍼우먼’으로 부른다. 하루 24시간이 부족하지만 주어진 역할을 소화하며 ‘성실’을 미덕으로 삼아온 그녀의 삶을 들여다보았다.



◀ 남양구조대 박정희 대장

### ○○ 나는 여성구조대장입니다.

우리협회가 창립된(2013년 1월)후 최초의 여성구조대장이 탄생하였다. 위험한 물과 싸우며 리더의 역할을 해오던 건 지금까지 단연 남성대원들의 몫이었다. 그래서 이번 여성대장의 취임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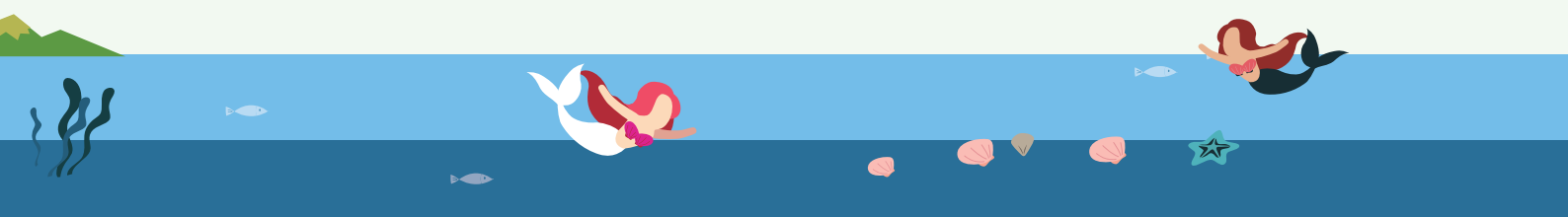
“시작은 단순하였다. 처음 구조대에 들어온 건 주말을 가족과 함께 보내야 할 아이의 아빠(유공수 남양구조대 고문)가 잠수 동아리에 가입하고 나서부터다. 98년도에 ‘구리 잠수동아리’라는 다이빙 자격증을 소지한 친목모임이 있었다. 주말을 이곳에 반납한 남편과 더이상 이야기의 공통관심사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어느 순간 나도 함께 따라다니게 되면서 스쿠버다이빙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다. 그리고 2002년 남양구조대에 부부가 함께 가입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처음 구조대장의 직책을 맡는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었다. 하지만 남양구조대가 2002년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차별을 두지 않고 활동에 임해왔다. 역할분담은 남성과 여성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라 분배되었을 뿐이다. 차별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대장이라는 무거운 직책을 맡을 수 있었다.”

### ○○ ‘최초’라는 타이틀은 여성대장 뿐만이 아니었다.

부부가 함께 구조단 시절을 거치면서 협회까지 15년 넘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2012년 2월에는 그녀의 남편인 유공수 고문이 제8대 대장을 역임하면서 대원들의 단합을 이끌었다. 그리고 2명의 대장을 거치고 2017년 제11대 남양구조대 박정희 대장이 취임하면서 최초의 부부대장이 탄생하였다.





“남편의 임기 때는 약 50여명의 대원들이 왕성하게 활동하였다. 행사가 있을 때면 한 달전부터 대원들 개개인에게 직접 전화를 돌려 참석을 알리며 동참을 이끌었다. 매번 봉사를 목적으로 만나지만 얼굴 한번 더 보고 안부인사를 물으며 가족같이 지낼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그 사람의 목표였다. 그렇게 화합을 이끌어 왔었다.”

● 역할의 선택, 며느리 VS 남양구조대

“같이 활동을 하다 보니 구조대 활동과 집안행사가 겹칠 때가 종종 있다. 지금은 주로 집안행사를 포기한다. 특히 어머니 생신이 음력 7월이다. 하계인명구조센터 운영시기와 겹쳐 어머니께 양해를 구하고 항상 생일상을 일찍 차려드린다. 딱 한번 하계인명구조센터 활동을 하루 빠지고 어머니 생신에 남편과 같이 갔었다. 하지만 생신 내내 마음이 불편했다. 계곡에서 사고라도 나면 어찌지 하는 마음 때문에 .....“

“그때를 생각하면 하계인명구조센터 활동을 하는 것이 더 마음이 편하다. 매번 이해해주시는 가족과 어머니께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다. 심지어 남편은 맏아들이다. 고로 나는 맏며느리다. (웃음)”

● 여섯명의 소중한 생명

남양주 구조대는 매년 남양주 구운천 황새바위 계곡에서 하계인명구조센터를 운영한다. 수심이 2.5~3m가 되는 이곳은 방심하는 순간 인명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이다. 작년에는 다른 봉사단체가 관리했던 구역에서 2명의 고등학생이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하였다. 남양주구조대에서도 이런 아찔한 순간이 발생한 적이 있다.

“2013년 여름이었다. 우리는 평소처럼 각자의 위치에서 물놀이를 하던 사람들을 주의주시하며 안전요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때 저 멀리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아이들 여섯명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장난인줄 알았다. 하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우리대원 4명이 물속으로 뛰어 들었다.

생명에 위협을 느낀 아이들은 살기위해 서로를 밀치는 지도 모른 채 아비규환의 상황이 연출되었다. 제일 힘없는 아이는 물 밑에 깔려 있었고, 심지어 구조하려 들어간 대원들 중 한명은 이미 정신이 나가있는 아이들 두 명에게 잡혀 물에 빨려 들어갈



▲ 박정희 대장과 남편 유공수 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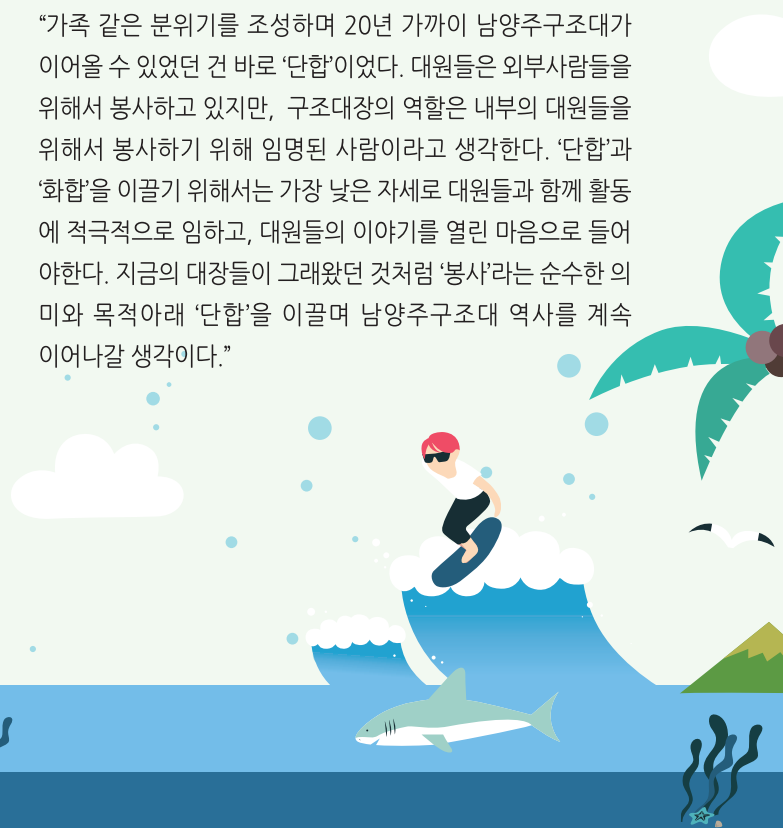
뻥 뚫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다. 다행히 대원들이 기지를 발휘하여 6명 모두를 무사히 구조하였다.“

“인명구조활동의 필요성이 절실히 와 닿던 순간이었다.”

● 대장으로서의 사명감

“젊은 친구들이 점점 이러한 힘든 봉사활동을 기피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기회가 된다면 젊은 친구들에게 봉사도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영입하고 싶다. 2013년도에는 우리구조대에서 활동하던 2명의 청년이 해양경찰에 합격하기도 하였다. 매우 자랑스러웠던 순간이다.”

“가족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며 20년 가까이 남양구조대가 이어올 수 있었던 건 바로 ‘단합’이었다. 대원들은 외부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지만, 구조대장의 역할은 내부의 대원들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 임명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단합’과 ‘화합’을 이끌기 위해서는 가장 낮은 자세로 대원들과 함께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대원들의 이야기를 열린 마음으로 들어야 한다. 지금의 대장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봉사’라는 순수한 의미와 목적아래 ‘단합’을 이끌며 남양구조대 역사를 계속 이어나갈 생각이다.”



# 환경을 부탁 海

## 17년간 북한강 물줄기와 함께 흘러온 남양주구조대



▲ 북한강 수변에서 정화활동을 하고 있는 남양주구조대원들

### ○● 북한강 환경정화활동의 시작

북한강변의 남양주시에는 카페, 음식점, 숙박 업소, 수상스키장 등 330여개의 위락시설이 있어 수중·수변의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남양주구조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2000년도부터 17년간 북한강 일대에서 매년 3회 이상 수중·수변정화활동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남양주구조대와 남양주시 그리고 환경단체의 노력으로 북한강은 현재 2급수의 수질을 유지하며 다양한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발전하였다.

### ○● 대원들의 역할분담

지난 6월 11일, 남양주구조대는 남양주시 구암리 일대에서 20명의 대원들이 모여 수중·수변정화활동을 하였다. 남양주구조대원들의 역할분담은 정확히 정해져있다.

강 속 깊이 침적되어 있는 폐기물들은 잠수대원들을 동원하고 선박, 크레인 등을 이용한다. 이날도 애드벌룬, 폐차, 가구 등과 같이 무게가 나가는 폐기물들을 크레인을 동원하여 밖으로 인양하였다. 그동안 다른 대원들은 수변 근처에서는 각종 생활 쓰레기들을 수거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이날은 약 2톤가량의 쓰레기를 수거하였다.



▲ 폐차 잔여물을 수거하는 잠수대원들





○● **꾸준함이 이루어낸 기적**

주말을 반납하고 북한강 일대에 모인 대원들에게 수중·수변 정화활동은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부부대원들이 특히나 많은 남양주구조대는 아이들도 함께 봉사활동을 하며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한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래서 그런지 힘든 줄 모르고 17년을 해왔다.”

대원들은 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한다.

“한때는 10대 이상의 폐차가 강물에 흘러 내려온 적이 있다. 그 잔여물들을 제거하는데 수년이 걸린 것 같다. 적은 인원으로 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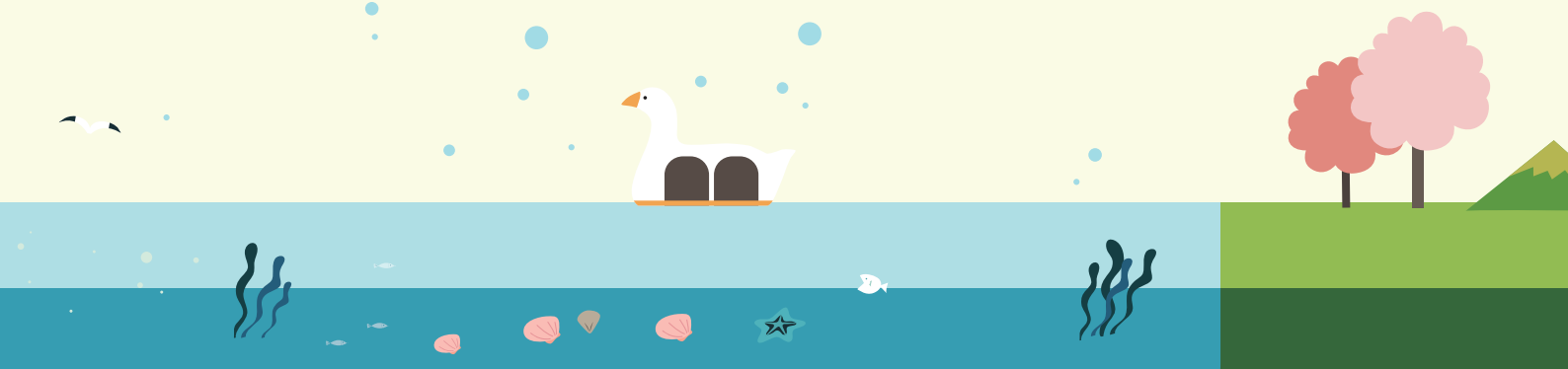
만치 않은 작업이었다. 유원지에서 관광객들이 버린 쓰레기도 엄청 흘러 내려온다. 강 밑에는 아직까지 폐기물들이 조금씩 남아 있지만 과거 북한강과 비교하면 월등히 깨끗해졌다.” 남양주구조대 박충원 고문은 폐차의 잔여물로 보이는 고철을 선박 위로 올리면서 말하였다.

북한강에는 수상레저를 즐기거나 강 주변에 텐트를 치고 자연을 즐기는 관광객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자연을 벗 삼아 이곳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건 바로 이런 숨은 봉사자들의 공로 덕분이다. 지칠 줄 모르는 남양주구조대의 꾸준함이 이루어낸 성과를 「너울사랑」을 통해 조금이나마 알려지기를 바래본다.



▲ 위) 크레인을 이용하여 쓰레기 인양 / 아래) 폐기물을 보트위로 올리는 잠수대원들 / 우측) 단체사진



## 전국 지부 및 지역대의 해양환경 정화활동 모습

### | 장흥구조대

5월 31일 장흥군 회진항 기름유출로 방제작업 진행



### | 울산지부

5월 21일 장생포 부두 수중·수변정화활동



### | 울산남구구조대

5월 15일 방어진항 어업인의 날 행사 수중정화활동



### | 울산지부

6월 4일 울산항 일반부두 일대 수중정화활동



### | 통영구조대

5월 31일 제22회 바다의 날 기념 한려해상국립공원 수중·수변정화활동



### | 경남동부(창원)지부

5월 21일 진해 해양레포츠센터 일원 수중·수변정화활동



### | 통영구조대

4월 22일 도남동 일원 수중·수변정화활동



# 2017년 상반기 인명구조요원 교육



우리협회는 2017년 상반기 총 76회의 인명구조요원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은 동해권역(속초, 동해, 포항, 경주, 울산), 남해권역(부산, 통영, 여수, 창원), 서해권역(목포, 완도, 진도, 군산, 부안, 인천, 평택, 태안), 제주권역(제주, 서귀포) 등 전국연안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1,450명의 교육생들 중 1,220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우리협회는 2005년부터 인명구조요원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현재까지 약 8,000여명을 전문구조인력을 배출해 오고 있다.

인명구조요원 자격취득은 해양사고 발생으로 인한 구조·구난 활동 시 구조대원의 절대적 안전은 물론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구조요원을 배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은 국민안전처에서 지정 받은 16개 교육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다. 해수욕장, 수영장에서 일하는 안전요원의 경우 비인가 단체의 자격증으로도 근무가 가능하나, 수상레저안전법상 수상레저사업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국민안전처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의 인명구조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우리협회의 구조대원들은 해양안전구조 능력배양을 위해 기본적으로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취득하며, 정기적인 훈련을 바탕으로 전국연안에서 구조·구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매년 여름, 해수욕장 개장에 따라 전국의 19개 지부에서 하계인명구조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격증을 취득한 해양구조전문가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지부 및 지역대원들은 자격증 취득에만 그치지 않고 기관 및 단체를 찾아 심폐소생술, 물놀이 사고예방 등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지역봉사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 지부·지역대 교육현장 모습



▲ 부산동래 JCI 심폐소생술 교육



▲ 포항구조대 : 포항해경서와 해수욕장 인명구조요원 합동교육



▲ 보령구조대 : 인명구조요원 신규 및 갱신교육



▲ 군산해경 인명구조요원 교육



▲ 인천해경 인명구조요원 교육



▲ 태안해경 인명구조요원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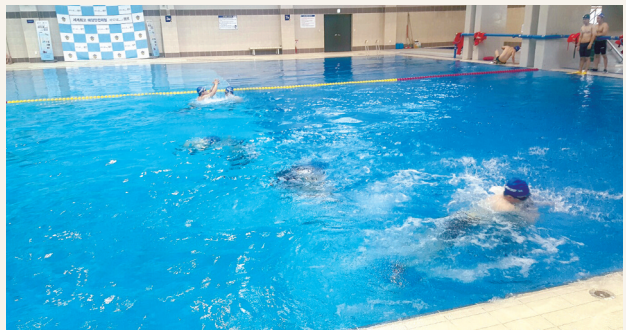
▲ 마산대학교 레저스포츠학과 인명구조요원 교육



▲ 창원해경 인명구조요원 교육



▲ 부산해경 인명구조요원 교육



▲ 여수해경 인명구조요원 교육



▲ 충청북부지부 : 구조대원 인명구조요원 교육



▲ 서울지부 : 서울시마포구대진유치원 구명조끼 착용법, 생존수영, 해양안전사고 대비 교육 실시

# 2017년 상반기 인명구조요원 교육

## 지부·지역대 교육현장 모습



▲ 장흥구조대 : 장흥관내 초·중생 응급처치교육



▲ 서울지부 : 공덕역 시민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



▲ 서울지부 : 제9회 서울시장남시대회 심폐소생술 교육



▲ 고흥구조대 : 인명구조요원 갱신교육



▲ 통영구조대 : 인명구조요원 교육



▲ 통영구조대 : 하동군 노량리 해양경비안전센터, 남해해양경비안전센터 응급처치교육



▲ 한국서부발전(주) : 재난안전교육 및 심폐소생술 교육



# 2017년 상반기 인명구조요원 교육



## 지부·지역대 교육현장 모습



▲ 경주구조대 : 인명구조요원 교육



▲ 충청북부지부 : 태안해경 인명구조요원 교육



▲ 경주구조 : 구조대원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 통영구조대 : 민간자율구조대 응급처치 교육



▲ 남양주구조대 : 인명구조요원 갱신교육



▲ 전북남부지부 : 인명구조요원 교육



▲ 서울지부 : 속초해경 인명구조요원 갱신교육



▲ 포항구조대 : 포항해경 인명구조요원 갱신교육



# 국민안전처,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 추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여름 물놀이철을 맞아 6월5일부터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전국에서 동시 진행 중인 이 캠페인은 어선에서 발생하는 선저폐수의 불법적인 해양배출을 줄이고 적법한 육상처리를 통해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향후 4주 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3년 간(2014~2016년) 기름 유출 등에 따른 해양오염 신고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도 1,186건, 2015년도 1,033건, 2016년도 1,135건으로 신고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신고 건수는 겨울철에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 3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물놀이 시작되는 7월에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올해 3, 4월 들어서는 최근 3년 평균에 비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부분의 기름유출 신고 건은 얇은 무지갯빛이나 은빛 유막을 형성하고 해상에 오래 지속되지 않으며, 오염범위 또한 넓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어선에서 발생하는 선저폐수를 몰래 배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어선에서 발생하는 선저폐수의 자발적인 적법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관리공단, 수협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입체적인 캠페인을 추진한다.

우선 선저폐수의 적법처리 포스터를 제작하여 어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전국 수협, 어촌계 등 게시판에 게시하고, 주요 항만에 설치된 전광판을 활용하여 홍보에 나서는 한편, 어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직접 배포하며 계도에 나선다.

또한, 어선에서 발생하는 선저폐수 무상 수거를 확대 추진키로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어민들의 선저폐수를 처리 부담도 완화한다.

그리고 수협중앙회 산하 전국 어업정보통신국에서는 해상에서 어로활동 중인 어선에 대하여 해상 무선 안내방송을 통해 실시간 계도활동을 벌인다.

국민안전처 김형만 해양오염방제국장은 “바다의 주인인 어민 스스로 바다를 깨끗이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면서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 출처 : 국민안전처 ]



## 여름철 무더위에 맞설 시원한 해수욕장이 돌아왔다!

- 6월 1일부터 전국 257개 해수욕장 순차 개장, 야간에도 60여 개소 운영 -

때 이른 무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국민들이 올 여름을 더욱 시원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6월 1일(목)부터 전국의 해수욕장을 차례대로 개장한다고 밝혔다. 올해에는 해수욕장 총 257개소가 개장하여 평균 약 44일 간 운영될 예정이며, 다양한 축제와 행사가 열려 국민들의 여름휴가를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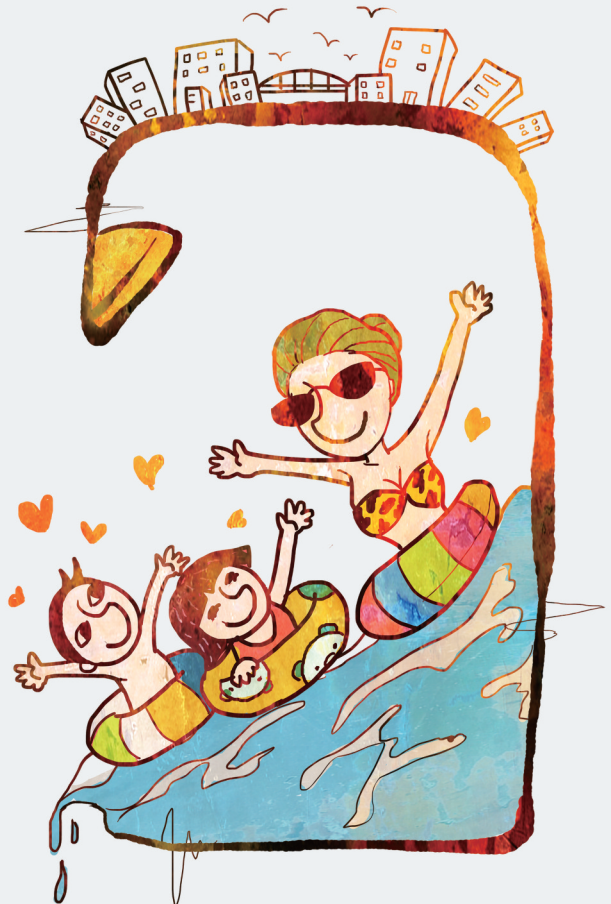
우선 개장 첫날인 6월 1일에는 해운대(송정·송도) 해수욕장(이상 부산) 등 3개소가 개장하며, 이후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무더위가 절정인 7월 24일 경 마지막으로 전남의 송이도 해수욕장을 개장할 예정이다. 가장 일찍 폐장하는 해수욕장은 전남에 위치한 수문·송호·사구미·송평·돌머리 등 5개 해수욕장으로 8월 13일까지만 운영되며, 가장 늦게 폐장하는 송도 해수욕장은 9월 11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해운대(부산)·대천(충남)·경포(강원)·오류고아라(경주)·협재(제주) 등 60여 개 해수욕장에서는 야간 개장을 실시하여 아름다운 밤바다의 정취가 담긴 색다른 해수욕장의 매력을 느껴볼 수 있다.

개장 기간 동안 전국 각지의 해수욕장에서는 하와이안 페스티벌(부산 해운대), 전국노래자랑(부산 송도), 조선해양 축제(울산 일산), 전국 해양스포츠제전(충남 대천), 공군 에어쇼(경포)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6월 해수욕장 개장시기에 맞추어 관할 해양경비안전서 등과 함께 해수욕장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해수욕장 안전관리 시설 및 안전관리 협업체계 등을 점검하여 이용객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물놀이 환경을 확보할 계획이다.

최준욱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은 “국민의 대표적인 휴양공간인 해수욕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해수욕장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6월 중 고시할 예정이다.”라며, “앞으로도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국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해수욕을 즐기실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하였다.

[ 출처 : 해양수산부 ]



# 연안 안전사고 주의, 6~8월 가장 많이 발생(39%)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무더워지는 날씨와 수온 상승으로 인해 해안가, 갯벌, 갯바위 등 연안에서의 물놀이, 어패류 채취(해루질) 등 레저·체험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도 높아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3년 간('14~'16) 연안사고 통계를 살펴보면, 총 2,584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388명이 사망(연 평균 129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름철에 집중 발생하여, 6~8월 중 연안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153명으로 전체의 39%를 차지하였다.

6~8월 중 연안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를 분석해 보면, 발생 장소는 해안가 55명(36%), 방파제·항포구 34명(23%), 해양 32명(21%) 순으로, 특히, 갯바위·방파제·항포구의 경우 사망자수는 매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유형 별로 살펴보면 익수가 103명(6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추락 31명(20%), 고립 5명(3%), 표류 3명(2%)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로 무리한 물놀이(익수)와 위험한 해안 절벽 접근에 따른 실족(추락) 등으로 인한 것으로, 부주의와 안전수칙 미준수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올해만 해도 벌써 지난 5월 8일 충남 태안군 소재 해수욕장 인근 갯벌에서 30대 남성이 어패류를 채취(해루질)하다 물에 빠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지난 14일에도 강원도

삼척시 궁촌항 방파제(테트라포드)에서 50대 남성이 낚시를 하던 중 추락하여 큰 부상을 입는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사전에 기상정보 등을 확인하고, 위험구역 등에 비치된 각종 안내표지판의 준수사항을 꼭 지켜야 하며, 출입통제장소에는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또한, 갯벌에 출입할 때는 사전에 물이 들어오는 들물 시간을 확인하여 휴대폰 알람 등을 설정해 두고, 들물 전에 반드시 갯벌에서 나오도록 하며,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방파제(테트라포드)·갯바위 등에서는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을 착용하고 활동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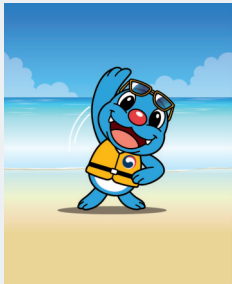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연안사고는 순간의 부주의가 목숨을 잃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연안에서 안전한 레저활동을 즐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본인 스스로 위험요소 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 출처 : 국민안전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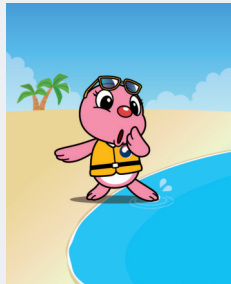
국내 뉴스

# 안전이 **안심**이 가 전하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수칙

## 국민안전처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수영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구명조끼를 착용



물에 들어갈 때는 심장에서 먼 부분(다리-팔-얼굴-가슴)부터!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겨질 때는 몸을 따뜻하게 휴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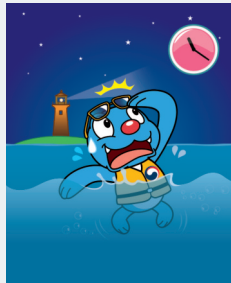
물이 갑자기 깊어지는 곳은 특히 위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배가 고프거나 식사 후에는 수영 NO!



수영능력 과신은 금물, 무모한 행동 NO!



장시간 수영 NO! 호수나 강에서 혼자 수영 NO!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구조 119에 신고



구조 경험이 없는 사람은 무모한 구조 NO! 함부로 물에 뛰어들면 NO!



가급적 튜브, 장대 등 주위 물건을 이용한 안전구조

### 여름철 물놀이 안전수칙


- 음주 후 수영할 때 사고발생 위험이 크므로 금지 또는 자제한다.
- 수영을 하기 전에는 손, 발 등의 경련을 방지하고자 반드시 준비운동을 한다.
- 물에 처음 들어가기 전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다리, 팔, 얼굴, 가슴 등의 순서) 물을 적신 후 들어간다.
- 수영도중 몸에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겨질 때 몸을 따뜻하게 감싸고 휴식을 취한다.  
※ 이 경우는 다리에 쥐가 나거나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 상당히 위험한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주의한다.
- 물의 깊이는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깊어지는 곳은 특히 위험하다.
- 구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안전구조 이전에 무모한 구조를 삼가야 한다.
-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구조에 자신이 없으면 함부로 물속에 뛰어들지 않는다.
- 수영에 자신이 있더라도 될 수 있으면 주위의 물건들(장대, 튜브, 스티로폼 등)을 이용한 안전구조를 한다.
-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나, 몹시 배가 고프거나 식사 후에는 수영을 하지 않는다.
- 자신의 수영능력을 과신하여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 장시간 계속 수영하지 않으며, 호수나 강에서는 혼자 수영하지 않는다.

## | 물에 들어갈 때 준비 사항은

- 준비운동을 한 다음 다리부터 서서히 들어가 몸을 순환시키고 수온에 적응시켜 수영하기 시작한다.
- 초보자는 수심이 얕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
  - ※ 물놀이 미끄럼틀에서 내린 후 무릎 정도의 얇은 물인데도 허우적대며 물을 먹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으므로 절대 안전에 유의한다.
- 배 혹은 떠 있는 큰 물체 밑을 헤엄쳐 나간다는 것은 위험하므로 하지 않는다.
  - ※ 숨을 들이쉬 상태에서 부력으로 배 바닥에 눌러 빠져나오기 어려울 때는 숨을 내뿜으면 몸이 아래로 가라앉기 때문에 배 바닥에서 떨어져 나오기 쉽다.
- 통나무 같은 의지 물이나 부유구, 튜브 등을 믿고 자신의 능력 이상 깊은 곳으로 나가지 않는다.
  - ※ 의지할 것을 놓치거나 부유구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
- 수영 중에 “살려 달라”라고 장난하거나 허우적거리는 흥내를 내지 않는다.
  - ※ 주위의 사람들이 장난으로 오인하여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 자신의 체력과 능력에 맞게 물놀이를 한다.
  - ※ 물에서 평영 50m는 육상에서 250m를 전속력으로 달리는 것과 같은 피로를 느낀다.
-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입에 문 채로 수영하지 않는다.
  - ※ 기도를 막아 질식의 위험이 있다.

## | 구명조끼 입고 안전한 물놀이!

우리가족 다함께 구명조끼 입고 캠페인



국민안전처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 구명조끼 입고 안전한 물놀이!

- 수영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준비운동과 구명조끼 착용
- 물에 들어갈 때는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다리→팔→얼굴→가슴)
-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겨질 때는 몸을 따뜻하게 휴식
- 물이 갑자기 깊어지는 곳은 특히 위험!!
-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배가 고플 때, 식사 후에는 수영 NO!
- 수영능력 과신은 금물, 무모한 행동 NO!
- 장시간 수영 NO! 호수나 강에서 혼자 수영 NO!
-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즉시 119에 신고
- 구조 경험 없는 사람은 무모한 구조 NO! 함부로 물에 뛰어들면 NO!
- 가급적 튜브, 장대 등 주위 물건을 이용한 안전구조



[ 출처 : 국민안전처 ]

## 협회교육안내

# 수상안전 및 응급처치 · 심폐소생술 교육

### 1) 목적

각종 재난 ·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최근 낚시인의 증가로 인한 갯바위 고립 및 너울성 파도로 인한 추락사고 등 해양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실시

### 2) 개요

- 기간 : 연중 상설반 운영, 찾아가는 교육 (연중휴무/ 1일 2시간)
- 장소 : 교육 요청지역 내 교육장
- 과정 : 해양안전 및 응급처치·심폐소생술 교육
- 대상 : 만 18세 이상 남 · 녀 누구나
- 교육비용 : 무료
- 문의 : 070-8785-6183, 010-3293-1119 김윤섭 본부장

### 3) 교육일정표

No	내용	내용
1	오리엔테이션 해양사고 및 응급처치 동영상 시청	해양사고 관련 사례안내
2	위급시 행동요령 이론 및 구명조끼 착용법	심폐소생술 이론 및 실기연습
3	자동제세동기 실기연습	심폐소생술 실기연습

## 재난 · 해양안전지도사 2급 양성교육

등록 번호	재난안전지도사 2015-003725 해양안전지도사 2015-002815
----------	--

### 1) 목적

각종 재난 ·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문화 보급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각종 재난사고 및 해양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전문성 있는 관리자로 양성하기 위함

### 2) 개요

- 기간 : 연중 상설반 운영, 찾아가는 교육 (평일반, 주말반, 야간반)
- 장소 : 교육 요청지역 내 교육장
- 과정 : 재난, 해양안전지도사 2급 과정
- 대상 : 만 18세 이상 남 · 녀 누구나
- 준비물 : 필기도구, 편안한 평상복, 운동화(실기실습), 사진 2매
- 교육절차



- 교육비용 : 10만원
- 교육비 수납
- 계좌번호 : 수협 1010-1020-6229 예금주 : 한국해양구조협회
- 환불 : 시험 하루 전날 까지 100% 환불
- 문의(담당자) : 070-8785-6183, 010-3293-1119 김윤섭 본부장

### 3) 교육과정

- 재난안전지도사 2급 (16시간)
  - 재난안전의 의미 (생활안전, 교통안전, 학교폭력, 성폭력, 산업안전 등)
  - 위급 시 행동요령 (중독, 약물, 상처 및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등)
- 해양안전지도사 2급 (16시간)
  - 해양재난의 의미 (해양안전, 여객선, 유람선, 낚시어선에 승선요령 등)
  - 위급 시 행동요령 (선박을 이용 시 주의사항, 안전수칙, 좌초, 화재 등)
  - 구조구급(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AED 사용법)

### 4) 평가기준

- 재난안전지도사 (2급)
  - 재난상황에서의 환자 발생 시 초동조치로 생명유지 및 의료기관으로 안전하게 이송 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 출석 및 태도(10%), 이론검정(20%), 실기실습(70%)
- 해양안전지도사 (2급)
  - 해양사고 발생 상황에서의 신속한 상황전파(119)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유지와 의료기관으로 안전하게 이송 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
  - 출석 및 태도(10%), 이론검정(20%), 실기실습(70%)

### 5) 기관정보 \_ 한국해양구조협회

- 대표자 : 민흥기
- 대표번호 : 051-714-3695
- 주소 : 48562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356번길 93 (용당동)

# 인명구조요원 · 인명구조강사 양성교육

등록번호	인명구조요원 2014-1485
	인명구조강사 2014-57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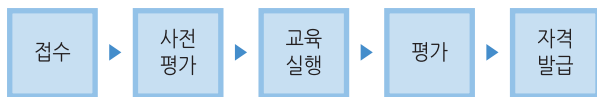
## 1) 목적

해양구조전문 봉사단체로서 해양사고 발생으로 인한 구조 · 구난 활동 시 대원의 절대적 안전은 물론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전문성 있는 구조요원 및 지도자 양성

## 2) 개요

- 기간 : 연중 상설반 운영, 찾아가는 교육(평일반, 주말반, 야간반)
- 장소 : 교육 요청지역 내 실내수영장 및 잠수풀장, 회의실, 강당
- 과정 : 인명구조요원 양성과정, 인명구조강사 양성과정
- 대상 : 만 18세 이상 남 · 녀 누구나
- 준비물 : - 필기도구, 편안한 평상복, 운동화(실기실습), 사진 2매-수영복, 수모, 수경, 오리발(수영장용)

### • 교육절차



- 교육비용 : 구조요원 20만원, 구조강사 30만원(자격증 발급포함)
- 교육비 수납
- 계좌번호: 수협 1010-1020-6229 예금주: 한국해양구조협회
- 환불 : 시험 하루 전날 까지 100% 환불
- 문의(담당자) : 070-8785-6183, 010-3293-1119 김윤섭 본부장

## 3) 교육과정

- 인명구조요원 양성과정 (40시간 이상)
  - 수상안전 및 응급처치법, 인명구조법 등 11개 과목
  - 수상일반상식, 인명구조요원 자세, 응급처치, 기본인명구조술 등
- 인명구조강사 양성과정 (60시간 이상)
  - 수상안전 및 응급처치법, 인명구조법, 교수법 등 15개 과목
  - 수상일반상식, 인명구조강사 자세, 심폐소생술, 장비구조, 교수법 등

## 4) 평가기준

- 인명구조요원 양성과정 (40시간)
  - 교육은 교육신청서, 서약서, 면책동의서, 병력기록서, 개인정보동의서 등을 접수하여 1차적으로 구조요원 교육 응시 기본 자격의 확인과정을 거쳐 기본방법이 되는 자에 한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 사전평가는 자유형 50m, 평영 50m 이상, 잠영 10m 완주 가능하여야 하며, 교육 전 반드시 사전 평가 실시하여 합격한 자를 선발한다.
  - (단. 심장, 폐 수술 등 심혈관질환자는 교육대상에서 제외)
  - 위 평가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기본교육과정(11개 과정/40시간)을 교육하며 교육장은 교육과목의 내용에 따라 제한수역과 개방수역으로 나누어 교육하되, 개방수역 교육 시는 구조선을 이용한다.

- 모든 교육은 교육강사 및 평가관으로 구성하며 교육, 평가를 실시한다. 단, 교육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인명구조강사 1명으로 할 수 있다. 교육인원 편성은 30명으로 하되 인명구조강사 2명, 응급처치강사 1명, 평가관 1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 인명구조요원의 평가는 본 협회 규정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합격기준은 총점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70점 이상으로 한다.
- 보수교육자(유효기간 만료자)는 신규 교육 시 1일차 또는 2일차 교육에 참여하여 보수교육(8시간)을 이수 후 자격증 갱신 가능. 다만, 유효기간 1년 이상 경과자는 신규교육과 동일하게 교육 수료 후 자격 취득 가능.
- ※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이 최종평가에서 합격하지 못한 경우 교육수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평가에 응시할 수 있다.

- 인명구조강사 양성과정 (60시간 이상)
  - 교육은 교육신청서, 서약서, 면책동의서, 병력기록서, 개인정보동의서 등을 접수하여 1차적으로 구조요원 교육 응시 기본 자격의 확인과정을 거쳐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취득한 자 (타 단체 포함)에 한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 사전평가는 400m 10분 이내 가능자, 800m 15분 이내 가능자, 잠영 30m 가능자, 양손 들고 입영 3분 가능자, 중량물 6kg 인양 가능자여야 하며, 교육 전 반드시 사전 평가 실시하여 합격한 자를 선발한다. (단. 심장, 폐 수술 등 심혈관질환자는 교육대상에서 제외)
  - 위 평가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기본교육과정(15개 과정 / 60시간 이내)을 교육하며 교육장은 교육과목의 내용에 따라 제한수역과 개방수역으로 나누어 교육하되, 개방수역 교육 시는 구조선을 이용한다.
  - 모든 교육은 교육강사 및 평가관으로 구성하며 교육, 평가를 실시한다. 단, 교육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인명구조강사 1명으로 할 수 있다. 교육인원 편성은 30명으로 하되 인명구조강사 2명, 응급처치강사 1명, 평가관 1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 인명구조강사의 평가는 본 협회 규정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합격기준은 총점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80점 이상으로 한다.
  - 보수교육자(유효기간 만료자)는 신규 교육 시 1일차 또는 2일차 교육에 참여하여 보수교육(8시간)을 이수 후 자격증 갱신 가능. 다만, 유효기간 1년 이상 경과자는 신규교육과 동일하게 교육 수료 후 자격 취득 가능
  - ※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이 최종평가에서 합격하지 못한 경우 교육수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재평가에 응시할 수 있다.

## 5) 기관정보 \_ 한국해양구조협회

- 대표자 : 민홍기
- 대표번호 : 051-714-3695
- 주소 : 48562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356번길 93 (용당동)

## 2017년도 국가자격 『수상구조사』 교육 시행 공고

### | 개 요 |

#### ■ 목적

해수면과 내수면에서 발생하는 수상사고에 대한 구조사의 기능과 역할을 체계적으로 고도화 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구조 대응체계를 유지 발전시켜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 ■ 내용

- 기 간 : 연중 (평일반, 주말반)
- 장 소 : 서울교육장, 부산교육장, 광주교육장
  - 서울 - (이론) 서울반포(요트, 일반)면제교육장, (실기) 수원월드컵수영장  
☎ 문의 : T. 02-711-0133 F. 02-711-5207 E-mail. kmrc.seoul@hanmail.net
  - 부산 - (이론) 사직실내수영장 교육장, (실기) 사직실내수영장  
☎ 문의 : T. 051-714-3695 F. 051-714-3095 E-mail. kmrc119@hanmail.net
  - 광주 - (이론) 남부대학교 교육장, (실기) 남부대학교 국제수영장  
☎ 문의 : T. 061-641-0122 F. 061-840-2746 E-mail. marsa122@naver.com

#### ■ 예비모임 및 사전평가

- 일시/장소 : 협회 홈페이지 참조
- 준비물 : 수영복, 수모, 수경, 필기도구, 신분증, 입장료

### | 교육신청기준 |

#### ■ 다음 기준을 갖추어야 교육신청 가능

- 교육생의 나이가 만14세 이상 남·녀 누구나  
※ 단, 만14세 ~ 만18세 이하의 경우 친권자 또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함

### | 사전평가기준 |

#### ■ 사전평가종목 - 교육 전 개인의 수영능력 평가를 위한 실기

과 목	내 용	비 고
자유형	25m 이상 가능한자	
	자유형 시 바닥에 발이 닿지 않고 수영가능한 자	
평영	25m 이상 가능한자	
	평영 시 바닥에 발이 닿지 않고 수영가능한 자	
잠영	1m 수면 하에서 20m 이상 잠영 가능한 자	
	신체 일부가 수면 위에 드러나는 경우 실격	
입영	수면 위에서 양손 들고 2분 이상 동안 신체를 지탱 가능한 자	
	뒤로 누운 자세로 호흡만으로 신체를 지탱 하는 경우 실격	



## | 세부교육내용 |

### ■ 영법 - 총 100m 완주 목표 (1분 30초 이내 ~ 1분 45초 이내)

- (머리들고 자유형) 수영장 25m 완주 훈련
  - 자유형으로 진행하되 머리는 들고 익수자를 주시하면서 신속히 완주
- (평영) 수영장 25m 완주 훈련
  - 기본 수영영법(평영)으로 신속히 완주
- (트러젠) 수영장 25m 완주 훈련
  - 팔동작은 자유형, 발동작은 평영으로 익수자를 주시하면서 신속히 완주
- (잠영) 수영장 25m 완주 훈련

### ■ 수영구조

- (입수법) 요구조자를 구조 시 물에 뛰어 들어가는 동작
  - 다리벌려, 다리모아, 다리굽혀, 머리먼저들어가기 등
- (접근법) 요구조자를 구조하기 위한 수영접근 동작
  - 머리들고 자유형, 머리들고 평영, 트러젠 등
- (구조법) 요구조자를 구조하기 위한 동작
  - 수하접근, 뒤집기, 끌기, 풀기 등
- (운반법) 요구조자를 구조하여 운반하는 동작
  - 겨드랑이끌기, 가슴잡이 등



### ■ 장비구조

- (입수법) 요구조자를 구조 시 물에 뛰어 들어가는 동작
  - 다리벌려, 다리굽혀, 머리먼저들어가기 등
- (접근법) 요구조자를 구조하기 위한 수영접근 동작
  - 머리들고 자유형, 머리들고 평영, 트러젠 등
- (구조법) 요구조자를 구조하기 위한 동작
  - 튜브전달, 뒤집기, 감기, 풀기 등
- (운반법) 요구조자를 구조하여 운반하는 동작
  - 겨드랑이끌기, 가슴잡이 등

### ■ 장비구조

- (머리지지/머리·턱 고정) 경추손상 요구조자 구조 시 머리·턱 고정
  - 경추손상 요구조자 구조



- (입영) 요구조자를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한 동작
  - 수면 위로 손목을 내 놓은 상태에서 다리만 사용하여 5분 이상
- (스컬링) 요구조자를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한 동작
  - 누워 있는 상태에서 구조자의 팔 동작, 얼굴과 발끝이 수면 위
- (익수자운반) 요구조자를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한 동작
  - 중량물 5kg을 25m 운반
- (구명뗏목) 요구조자를 안전하게 퇴선조치
  - 위급 시 선박퇴선 요령, 구명뗏목 사용법, 의장품 안내 등
- (구명동의) 요구조자를 안전하게 퇴선조치
  - 올바른 구명동의 착용 방법, 해수욕장 및 선박 내 구명동의 활용방법
- (퇴선) 요구조자를 안전하게 퇴선조치
  - 퇴선 방법 및 뛰어내릴 때 자세 등

#### ■ 응급처치

- (성인 심폐소생술) 심정지 요구조자 가슴압박 방법
  - 성인 구분, 매뉴얼 절차 숙지 등
- (소아/영아 심폐소생술) 심정지 요구조자 가슴압박 방법
  - 소아 및 영아 구분, 매뉴얼 절차 숙지 등
- (자동심장충격기) 심정지 요구조자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 AED 작동법, 패드부착 위치, 매뉴얼 절차 숙지 등

#### ■ 장비기술

- (로프 매듭법)
  - 상황별 로프 매듭방법, 매뉴얼 절차 숙지 등

### | 교육기간 및 장소 |

#### ■ 주요일정

- 접수기간 : '17. 3. 20(월) ~ 연중 (홈페이지 참조)
- 신청방법 : 온라인(e-mail)접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예비모임 및 사전평가 합격 시 교육신청서 작성
- 교육신청서 다운로드 방법



■ 제출서류

- 교육신청서 1부(양식 1)
- 면책동의서 1부(양식 2)
- 병력기록서 1부(양식 3)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양식 4)
  - 위 모든 서류는 자필 서명이 들어가야 함
  - 심장질환, 뇌질환 등 교육 받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 자는 교육불가

■ 교육신청 시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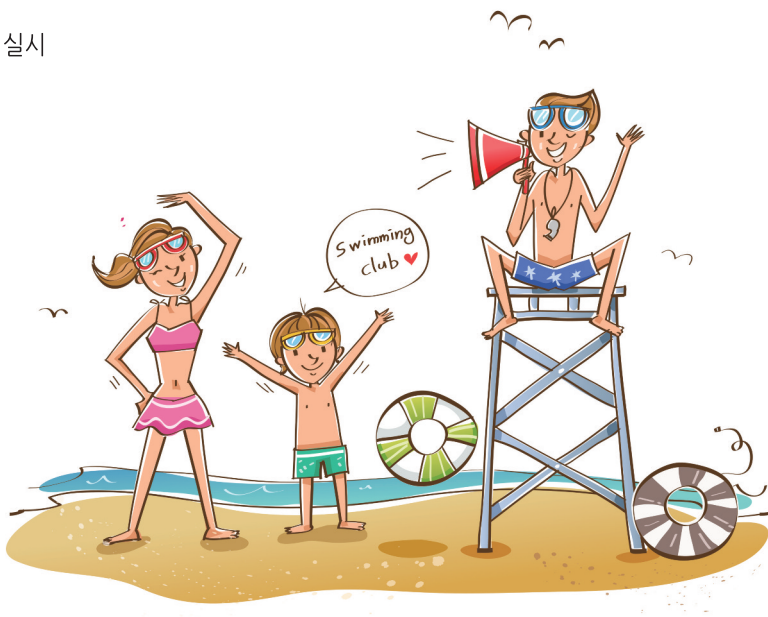
- 본인의 부주의로 사전평가 불합격 시 협회에서 책임지지 않음
- 사전평가 후 불합격자는 교육비 환불
- 수영장 입장료 본인 부담
- 교육수료(64시간) 후 재교육 불가

| 기타 준비물 |

- (이론) 필기도구
- (실기) 운동화, 트레이닝복장(상,하), 수영복, 수모, 수경, 세면도구

| 교육일정 |

- 협회 홈페이지 참조
- 평일반, 주말반 운영 예정
- 예비모임 및 수영 사전평가 실시
- 각 교육기관별 문의



## 협회후원안내

### 1) 월 정기후원 안내

- 아래의 계좌번호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입금은행 : 수협 | 입금계좌번호 : 1010-1020-6195 | 예금주 : 한국해양구조협회

### 2) 특정목적사업 후원

- 구조장비 보급사업, 청소년안전교육, 바다쓰레기 정화활동 등 특정 프로그램에 협찬, 후원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사홍보물에 후원자의 이름, 로고 등을 넣어드립니다.

### 3) 후원회원이 되시면

- 후원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이 발행되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해양구조협회에서 발행하는 기관지와 홍보물을 보내드립니다.
- 한국해양구조협회의 행사에 우선 초대해드리며, 참가비가 있을 때는 할인혜택을 제공합니다.
- 해양안전지킴이로서 보람과 긍지를 돌려드립니다.

### 4) 문의

| 전화 : 051-714-3695 | 팩스 : 051-714-3095 | E-MAIL : marsa122@marsa.or.kr |



# Korea Maritime Dangerous Goods Inspection & Research Institute

**안전한 바다 푸른 미래  
함께 성장하는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 위험물 수납검사 • 위험물 용기검사 • 위험물 전문교육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KOREA MARITIME DANGEROUS GOODS INSPECTION&RESEARCH INSTITUTE



# PACIFIC OCEAN

Pacific Ocean Marine Industries Co., Ltd.



- 선박수중관리
- 선급검사
- 수중정비
- 수중용접/수중절단
- 수중소제
- 해양설치
- 심해조사
- 수중건설
- 선박인양(Salvage)
- 해양오염방제
- OIL PLATFORM 통합솔루션

본사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117번길 32 태평양빌딩  
 전화 : 051-414-9300~3      팩스 : 051-413-0234  
 홈페이지 : <http://www.podc.co.kr>  
 이메일 : [diver@podc.co.kr](mailto:diver@podc.co.kr)